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통제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이민국에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경찰에서 통지를 받으면 48시간내에 러시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선교지의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침 묵상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주셔서 매주 금요일 5시에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와 알렉세이 형제, 꼬스짜 형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고 짧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도지를 보고 지난주에는 노숙자 중 한명인 라파엘 형제가 교회로 찾아와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전도가 중요한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관계성을 맺고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봉어빵 전도에 대해서 듣고 이것을 러시아에 적용하고자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함께 나누어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세르게이 전도사와 함께 교회 근처에서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전도지만 나누어줄 때는 사람들이 피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함께 나누어주니 잘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 목회자와 새롭게 재활센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재활센터에는 현재 9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성 7명(이고리, 안톤, 세르게이, 꼬스짜, 알렉, 게나, 사샤) 여성 2명(올라, 스베타)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고리와 올라가 이 센터를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리더인 이고리는 55세인데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8년간 중독자를 섬기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알렉산드르 목사를 만나서 이 재활센터에 오게 되었고 이 센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고리 형제가 재활센터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도록, 현재 9명인데 30명까지 채워지도록, 그리고 이곳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톤이라는 형제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4년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전쟁터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몸에 4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전도지를 받고 밤새도록 걸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33살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센터에서 음식도 만들며 차량으로 섬기는 올라 자매는 9살난 딸인 아리아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자매인데 센터에서 잘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합니다.



저와 세르게이 전도사는 성도들이 기증한 옷들과 과일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는 간증을 했고 저는 짧게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중독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독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레사의 남편 그레고리의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현재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거부반응이 나타나서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거

부반응이 없이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레고리의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레고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요즘 저녁 9시에 왓츠앱으로 하는 합심기도시간에 세르게이, 알렉세이, 꼬스짜 형제와 함께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올레사, 안나, 꼬스짜, 알렉세이 형제들과 성경공부를 하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가 쥘나 형제를 제자로 양육하며 알렉세이 형제가 라메트 형제와 성경공부를 하며 그를 잘 양육하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러시아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전쟁이 속히 끝나고 러시아 땅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2.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매주 금요일 노숙자 무료급식, 중독자 재활 센터 섬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4. 매주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5. 세르게이 전도사의 신학공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쥘나 형제를 제자로 잘 양육하도록
6. 황돈연 선교사 건강과 성령충만, 러시아어 설교, 정경선 선교사 건강과 장기 비자, 아이들 (인우, 수진) 직장생활과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